

4월 기준 25~29세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10.9%로 2000년 이후 최고치

취업준비생·구직 단념자 모두 늘어... 3개월 연속 10%대 기록

15~29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9%로 전년 동월(10.2%)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2월(12.5%)과 3월(11.8%)에 이어 세 달 연속으로 10%대를 기록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실업자가 수가 집중적으로 늘었다. 30대(-1만5000명), 40대(-5000명), 50대(-3000명)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자 수는 48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9000명(8.7%) 증가했다. 특히 주 취업 연령대인 25~29세 실업자는 27만명으로 3만9000명(17.0%)이나 늘었다. 25~29세 실업률은 10.4%를 기록해 전년 동월(9.3%)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재학·수강 과정에 있는 취업 준비생은 6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8.1%) 증가했다.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164만2000명으로 15만명(+10.0%) 증가했고, 구직 단념자는 41만4000명으로 1만9000명(4.8%) 늘었다. 한편 4월 취업자 수는 261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2000명(1.0%)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2월 22만 3000명까지 축소됐다가 3월 30만명을 기록하며 반등했지만 4월 들어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12만1000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도소매업(-8만000명), 농림어업(-6만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0만 8000명), 50대(+7만8000명), 15~29세(+4만3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30대(-2만2000명)와 40대(-5만2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중상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45만9000명)와 임시근로자(+9만6000명)는 늘었고 일용근로자(-16만9000명)는 줄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10만5000명)와 무급가족종사자(-2만8000명)가 모두 감소했다. 고용률은 60.3%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7%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전체 실업자 수는 10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105만3000명) 대비 2만2000명(2.1%) 늘었고, 실업률은 3.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업자의 범위에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해 계산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1%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고용 동향에 대해 "조사시기(4월10~16일) 중 휴일(4.13 총선)이 포함되면서 일용직 감소폭이 확대돼(1분기 9만3000명→4월 16만 9000명)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급성장한 편의점 도시락시장 11일 오후 어느 편의점에서 고객이 도시락을 고르고 있다. 편의점 업체에 따르면 CJ·GS25·세븐일레븐 등의 도시락 매출은 12인 가구 증가와 인식 변화로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150~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필 장관, 새만금 현장 시찰

새만금 사업단, 관계자 30여명 대상 추진현황 설명
이동필 장관은 11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종훈 간척지농업과장 홍서범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강승구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장,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 등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주요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농생명용지현황을 안내했다. 이날 박종훈 단장은 내년 준공을 앞둔 농생명용지5공구 및 새만금 노출지 사료작물재배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새만금 노출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중인 대규모농업회사 부지와 첨단농업 시험단지 등 현장 시찰하고 농어업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업인프라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장시찰 후 이동필 장관은 국산 조사료 수확·제조 시연회에 참석하여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 시연을 참관하고 "이번 시연회를 통해 고품질의 국산 조사료 생산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국산 조사료 생산·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경쟁(耕種)농가와 축산농가간 상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 경천저수지 영농급수 통수식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창호)는 11일 완주군 경천면 경천저수지에서 2016년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본격적인 영농급수를 알리는 통수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대야, 경천, 동상저수지 등 3개 저수지의 저수량 5,633만5,000톤을 확보한 상태다. 김창호 지사장은 "활활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농업인이 안전영농으로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농협중앙회, 새만금간척지 국내조사료 수확 시연회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일)는 11일 국내 간척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만금 간척지에서 국내산 조사료 수확 시연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새만금 간척지는 총 2만3,300ha 이상 농업용지는 8,570ha, 조사료 재배면적은 650ha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동개최한 이번 행사는 유류자인 새만금간척지에서 국내산 조사료를 연간 3만톤 규모로 생산함으로써 국내 조사료 자급율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료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약 113억 원에 이르는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중앙회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 조사료 수확 시연회를 통해 대규모 유류자인 간척지 내 조사료 재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익산국토관리청, 안전취약 건설현장 점검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안전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6~7월 집중호우를 대비해 호남지역 도로, 철도, 하천, 건축물 등 총 30개 현장에 대한 축대, 절개지, 하천제방 등 붕괴 위험현장을 집중점검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가시설물, 건설장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을 위해서 익산국토청 직원 10명의 점검반이 투입되며, 해상교량 공사현장(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구조 안전성 점검과 현장컨설팅을 하게 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시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토록하고, 구조적 안전 등 중대한 부실사항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철중 건설관리실장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해요소를 없애,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생산현장 디지털화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기청, 이달 26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택)은 2016년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도입·보완과제)참여기업 모집한다.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ICT를 접목,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특히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POP, MBS 등)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생산정보시스템(POP, MBS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전주 롯데백 샐러드 봉사단, 사랑의 밥차 무료배식 봉사

연탄은행과 함께 20여명 참여
롯데백화점 전주점 샐러드 봉사단은 11일,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공원에서 '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주 연탄은행과 연계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오전11시~오후2시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 점장을 포함 20여명의 직원들이 이날 직접 배식 활동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박중구 점장은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식사를 드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앞으로 도 지역 내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샐러드 봉사단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 자체 봉사단이며 매월 독거노인 및 결핵이동,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방문해 청소, 안마, 연탄배달, 목욕, 찬송가 부르기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광영 기자

전북은행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세무지원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세무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